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를 통해 본 南龍翼의 二元的
認識世界와 그 意味*

尹載煥**

|| 차례 ||

- I. 序論
- II.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의
구성과 전개
- III. 自尊과 蔑視의 基底 意識
- IV. 驚異와 抑制의 對應 意識
- V. 結論

【국문초록】

壺谷 南龍翼(1628~1692)의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는 을미년(1655) 4월 20일 서울을 출발하여 다음해인 병신년(1656) 2월 20일 복명하기까지 약 10개월간 이루어진 제6차 조선통신사행의 종사관으로 참여한 남용익이, 일본 사행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일 江戶를 출발하여 조선으로 되돌아오던 도중인 을미년 12월 29일 赤間關에 도착하기 직전 배 안에서 쓴 200韻 400句 2,000字의 장편 고시이다.

이 시를 통해 남용익의 이원적 인식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가 남용익의 대표작이라는 점과 함께 사행의 歸路에서 자신의 사행 여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시라는 점에 기인한다. 또, 사행기간 동안 남용익이 지니고 있었던 인식세계를 살펴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2-A00081).

** 檀國大學校 文科大學 國語國文學科 教授

보고자 하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거의 6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통신사행에서 조선이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당대 남용익이 지니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관념과 일본 사행 도중 인지한 일본, 그리고 사행 이후 지니게 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남용익 한 사람의 것이었다기보다는 당대 일본을 직접 경험했던 조선 문사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 인식이 당대 일본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조선 문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남용익이 일본 사행을 통해 보여준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이는 이후 전개될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壯遊……>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본에 대한 남용익의 기본적인 인식세계는 조선과 일본에 대한 확연한 구분의식이다. 이 구분 의식은 자연스럽게 조선을 일본에 대한 문명의 施惠者로, 일본을 일방적인 受容者로 간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문명을 전파해준 은인인 조선에 칼을 겨누는 背恩忘德한 국가로 규정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對日本認識은 남용익뿐 만 아니라 당대 조선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일본을 멸시하는 남용익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조선에 대한 自尊意識으로 轉化되어 나타났다. 특히 문화적 우월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卑下意識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을 침탈했던 임진왜란의 원흉에 대해 남용익은 극단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의 비판의식은 점차 범위를 넓혀 일본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일본의 문명과 문화 전반에 대한 경멸과 천시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식은 다른 한편으로 남용익의 의도적인 현실 부정 욕구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壯遊……> 속에서 남용익이 일본에 대해 이원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직접 일본을 접한 남용익이 느낀 경이로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접한 일본은 풍부한 물산, 발달한 기술과 제도에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함께 갖춘 나라였다. 이런 일본의 모습들 모두 남용익에게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대상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남용익이 직접 접한 일본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그러면서 호시탐탐 남을 침범하기 위해 칼을 가는 오랑캐라고 할 수 없고, 시에 드러난 표현만을 본다면 남용익의 對日本 意識도 卑下와 蔑視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시를 살펴보면 남용익의 눈에 비친 일본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변화한 문물,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오랑캐의 習俗을 벗어날 수 없는 倭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壯遊……>에서 볼 수 있는 남용익의 驚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남용익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본에 대한 驚異는 그가 일본 사행을 통해 그 스스로 도저히 덮어버릴 수 없는 강한 충격을 받은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 驚異의 표출 이후에 나타나는 일본에 대한 비판은, 남용익에게 작용한 驚異의 충격이 일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자 자연스럽게 작용한 防禦機制라고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남용익의 <壯遊……>에서 찾을 수 있는 일본에 대한 비판, 비하와 멸시의 시각은 일본을 바라보는 남용익의 기저 인식이 작용한 결과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일본을 접하고 느낀 스스로의 경이를 억제하고 제어하여 조선과 일본을 구분하고 조선을 일본의 위에 두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기제의 작용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壯遊……>의 내용 구성은 역설적으로 사행 전 남용익이 지니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막연하고도 전통적인 비하와 멸시 의식이 사행 기간의 경험에 의해 크게 동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동요의 진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壯遊……>는 남용익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제 더 이상 일본을 이전 시기와 같이 절대적 야만국, 미개한 오랑캐인 倭로만 볼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호곡 남용익, 조선통신사, <壯遊>, 일본, 인식

I. 서론

壺谷 南龍翼(1628~1692)의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는 을미년(1655) 4월 20일 서울을 출발하여 다음해인 병신년(1656) 2월 20일 복명하기까지 약 10개월간 이루어진 제6차 조선통신사행의 종사관으로 참여한 남용익이, 일본 사행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일 江戸를 출발하여 조선으로 되돌아오던 도중인 을미년 12월 29일 赤間關에 도착하기 직전 배 안에서 쓴 시이다¹⁾. 이 시를 쓴 날이 자신의

1) 『海行摠載』3冊, 『扶桑錄』, 回槎錄, “十二月二十九日己卯, 陰東風, 次赤間關. 曉來順風大作, 而勢甚緊猛, 進待少緩. 卯時發船, 次第掛帆, 波濤雖盛, 風力極順, 直過上關, 達夜行船, 船行如箭. 一年將盡之夜, 寄臥萬頃波上, 瞥過萬重雲山, 誠是百

생일이었고, 사행의 임무를 무사히 마친 뒤 되돌아가고 있다는 흥분하고 흥겨운 마음에서 쓴 시이지만, 시의 내용은 걱정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본에서 보낸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사행 경험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지극히 이성적인 시이다. 내용이 방대한 만큼 장편이어서 시 전체 분량이 200韻 400句 2,000字에 이르는 장편 고시이다.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는 남용익 스스로 밝혔듯이 그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 다시 짓기 어려웠던 남용익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이다²⁾. 이 글에서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를 통해 남용익의 이원적 인식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가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남용익의 대표작이라는 점과 함께 사행의 歸路에서 자신의 사행 여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시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이 시 속에는 사행 기간 동안 남용익이 지녔던 대일본 인식과 그 인식의 다양한 현실적 대응 양상이 사행의 전개 과정에 따라 선명하게 드러난다.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가 사행여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내용상의 특성 때문에 남용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나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일찍부터 이 시에 주목하여 왔다³⁾.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진 시는 대부분 『壺谷集』 속의 『扶桑錄』에 수록되어 있는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가 아니라 『海行摠載』 속 『扶桑錄』에

年壯遊也. 所乘船最疾, 以上船之落後, 有時下帆進待, 放火箭相應, 懸大燈以表. 行中之人, 以余初度日, 設小酌各勸一盃, 仍與讀祝, 達曙打話, 仍述二百韻排律, 以寫客懷. 翌日卯初, 到泊赤間關, 是日一晝夜行五百里.”

2) 南龍翼, 『壺谷漫筆』, 卷 3, “余點檢一生所作, 扶桑錄似最優, 其中富士山·壯遊二百韻等作, 氣衰後不可得.”

3) 대표적인 글로 安末淑, 윤재환, 이혜순, 韓受燾의 글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이혜순의 글이 가장 자세하다.

수록되어 있는 <壯遊二百韻>이었다. 그래서 이혜순은 그의 글에서 “남용익은 <壯遊>라는 제목 아래 二百韻이라고 부기했으나 필자가 계산한 바로는 총 199운 398행으로, 작자가 賦詩하는 과정 중에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⁴⁾”고 했다. 남용익이 『海行摠載』 속의 <壯遊二百韻>을 먼저 창작하고, 나중에 이 시를 정리하여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를 문집 속에 수록한 것이라 유추된다는 점에서 이혜순의 언급이 잘못된 것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壺谷集』 속의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는 정확하게 200韻 400句로 이루어져 있다. 『壺谷集』 속의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와 『海行摠載』 속의 <壯遊二百韻>을 대조해보면 적지 않은 글자의 출입과 글자간 순서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고, 또 『海行摠載』 속의 <壯遊二百韻>에 빠져있는 두 구인 ‘氛迷旋廓掃 惡極果穢誅’가 『壺谷集』 속의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 27구와 28구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⁵⁾.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를 통해 사행기간 동안 남용익이 지니고 있었던 인식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거의 두 세대 즉, 6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통신사행에서 조선이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은 작업에 이 시가 가장 적절한 자료라 생각해서이다. 남용익의 통신사행은 임진왜란 직후인 정미년(1607) 1월 12일부터 그 해 7월 17일까지 이루어진 제1차 통신사행 이후 6번째로 이루어진 것이고 첫 통신사행 이후 48년이나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시기 남용익이 지니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관념과 일본 사행 도중

4) 이혜순, 『조선 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72면의 각주 25번.

5) 윤재환, 『호국 남용익의 사행시를 통해 본 대일·대청 의식의 양상과 의미』, 『한문학보』 24, 2011. 309면 ~ 313면 참조

인지한 일본, 그리고 사행 이후 지니게 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남용익 한 사람의 것이었다기보다는 당대 일본을 직접 경험했던 조선 문사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 인식이 당대 일본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조선 문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남용익이 일본 사행을 통해 보여준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이는 이후 전개될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이에 의미를 두고 기술된 것이다.

II.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의 구성과 전개

남용익의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는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남용익이 일본 사행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오던 도중인 을미년 12월 29일 赤間關에 도착하기 직전 일본에서의 한 해와 자신의 사행 경험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며 쓴 시이다.

자신이 경험했던 일본 사행을 총 정리하고자 한 시의 창작 동기와 같이 남용익의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의 구성 과정은 모두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일본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과 심경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두 번째 단락은 일본에서의 경험, 세 번째 단락은 되돌아가는 과정과 자신의 결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 시의 두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일본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과 심경을 서술한 첫 번째 단락은 제1구부터 122구까지인데, 다시 내용에 따라 아홉 부분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조선과 일본의 기본적인 차별성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제1구부터 6구까지이고, 두 번째는 7구부터 10구까지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류가 시작된 교류의 기원을 밝힌 부분이다. 세 번째는 조선 건국시기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11구부터 14구까지가 여기에 해당하고, 네 번째는 임진왜란을 형상화한 부분으로 15구에서 28구까지이다. 네 번째 부분 중 25구부터 28구까지는 명나라의 도움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류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서술한 것으로 29구부터 38구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섯 번째는 제6차 통신사 행단을 소개한 부분인데, 첫 단락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모두 34구로, 39구부터 72구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61구부터 66구까지는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곱 번째는 사행 임무를 부여받는 광경을 서술한 것으로 73구부터 88구까지이다. 여덟 번째는 89구부터 100구까지로 사행 출발 전 부모, 처자, 친지를 이별하는 상황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아홉 번째는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으로 101구부터 122구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111구부터 116구에서는 여정의 어려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은 123구부터 326구까지로 모두 204구이며 전체의 51%에 해당한다. 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시의 중심 내용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對馬島에 도착하여 江戸를 떠날 때까지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 모두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對馬島에서 접한 풍경을 서술한 것으로 123구부터 138구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對馬島를 떠나 大阪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서술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남용익은 지나쳐 온 지역 하나하나를 모두 시 구절 속에서 거론하여 大阪에 도착할 때까지의 경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행 경로를 자세하게 서술한 것은 對馬島를 떠나 大阪에 도착하기까지의 사행 경로가 모두 험난한 뱃길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39구부

터 164구까지가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세 번째 부분은 大阪의 풍경을 서술한 것으로, 165구부터 184구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171구부터 180구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豊臣秀吉에 대한 남용익의 의식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임진왜란의 원흉인 豊臣秀吉에 대해 남용익은 극단적인 비판 의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서술은 남용익에게 임진왜란의 참상은 잊혀져가는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기억 속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번째 부분은 倭京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다. 185구부터 210구까지가 네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의 197구부터 208구까지에서 남용익은 일본인들이 天皇이라고 높이는 인물과 皇室, 法度の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비판을 가하지만, 이와 함께 발달한 倭京의 모습에 경이로움을 드러낸다. 다섯 번째 부분은 211구부터 228구까지로 倭京을 떠나 江戸까지 가는 여정을 서술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남용익은 富士山을 중심으로 일본의 자연 풍광에 대한 경이로움을 토로하였다. 여섯 번째 부분은 江戸의 풍경을 서술한 것으로, 229구부터 326구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일본에 대한 남용익의 이원적 인식 세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의 237구부터 244구까지는 徳川家康에 대해 서술한 것이고, 253구부터 262구까지는 日光의 東照權現廟를 묘사한 것이며, 265구부터 298구까지는 風俗을, 299구부터 304구까지는 宮室을, 305구부터 312구까지는 衣服을, 313구부터 318구까지는 음식을, 319구부터 326구까지는 당대 일본의 특이한 풍경을 서술한 부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歸路를 서술한 것이다. 327구부터 400구까지 74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전까지 시의 묘사가 풍경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세 번째 단락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새로운 것이 없는 풍경이었기 때문

에 그러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돌아간다는 또는 돌아가서 이전과 같이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귀로를 서술하고 있는 세 번째 단락이 이전 단락의 구체적 풍경 묘사에서 개인의 심리 묘사로, 특히 유가적 도덕 규범에 충실한 심경 묘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이 시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를 형식면에서 살펴보면 이 시는 동일 운자의 사용과 5언시의 기본 평仄을 가능한 한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5언고시라기 보다는 5언배율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韻字는 上平聲 제7韻인 虞韻을 사용하고 있다. 언뜻 보아 고시 같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고시는 평仄과 韻字의 구속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장편 고시의 경우 換韻이나 通韻이 일반적이는데, 이 시는 중간에 환운이나 통운을 하지 않고 200韻 모두 虞韻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⁶⁾. 이와 같은 운자 사용의 특성은 청각적으로 단조로워진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민요나 동요와 같이 동일 리듬을 반복하게 하여 따라 읽고 읊기 쉽게 해 준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남용익이 시 전체의 리듬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운, 그것도 상평성의 虞韻으로 평仄을 지켜가며 一韻到底한 것은 동일 운자를 반복하여 400구의 시 전체에 동일한 하나의 리듬을 부여하고자 한 의도적인 행위라 보인다. 이를 통해 동일 리듬을 반복하여 독자들이 이 시에 쉽게 익숙해지게 하면서 그 자신의 시적 재능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내용상, 또 형식상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두 장에 걸쳐 이 시에 드러난 남용익의 이원적 인식세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6) 이 시의 운자에 대해 이혜순은 앞의 책 75~76면에서 하평성 尤운을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분명한 오류이다.

Ⅲ. 自尊과 蔑視의 基底 意識

전술한 것과 같이 이 글은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⁷⁾를 대상으로 남용익의 이원적인 대 일본인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壯遊>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본에 대한 남용익의 기저의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에 대한 남용익의 기본적인 인식세계는 이 시의 첫 번째 단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 단락의 내용으로 보아 남용익의 인식세계는 조선 조 당대 문인들의 일반적인 의식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시의 첫 두 구가 “鰈域三韓國 蠻鄉百粵區”라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조선과 일본을 구분하는 개념이다. 첫 구의 ‘鰈域’은 가자미 모양으로 생긴 지역, 혹은 가자미가 많이 나는 곳이라는 뜻으로 조선을 지칭하는 말이고, ‘蠻鄉’은 오랑캐 혹은 미개한 민족을 이르는 말이다. 또, ‘百粵區’는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에 망한 월나라 사람들이 남쪽으로 흩어져 廣東 등에서 작은 나라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나라를 총칭하여 百粵이라고 한 것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보면 첫 구에서부터 남용익은 조선과 일본에 대한 확연한 구분의식을 가지고 시를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과 일본을 문명과 오랑캐로 구분한 남용익은 그 다음 두 구에서 “風從方土別 俗與語音殊”라고 하여 조선과 일본은 氣風, 風俗, 言語가 확연히 다른 지역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 의식은 자연스럽게 조선을 우위에 두게 하여 조선을 일본에 대한 문명의 施惠者로, 일본을 일방적인 受容者로 간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문명을 전파해준 은인인 조선에 칼을 겨누는 背恩忘德한 국가로 규정하게 하였다.

7) 여기서부터 시의 원제목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를 <壯遊>로 줄여 서술하도록 한다.

- 009 逃矣當麗季 지 옛날 고려 말엽에
010 欽哉揀宿儒 큰 학자 선택하여 사신 보냈으니 공경하라
011 聖朝臨御肅 우리 조정 개국하여서는
012 文德舞干敷 문덕을 가지고 간척무를 추웠건만
013 納款常懷附 정성을 바쳐 늘 복종하는 척하다가
014 乘機竊覬覦 틈을 타서는 몰래 엿보았네.

위의 인용한 부분에서 전술한 것과 같은 남용익의 일본 인식을 확연하게 인지할 수 있다. 고려 말 정몽주라는 큰 학자를 선택하여 일본에 문명을 전파하였고, 조선이 개국한 뒤로도 일본에 대한 문명의 전파는 유지되었지만, 일본은 겉과 속이 다른 나라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용익의 일본 인식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그에게 미친 임진왜란의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 019 楚危陵寢辱 초나라 같이 위태로워 선왕의 능침이 욕 당했고
020 燕破耄倪俘 연나라 같이 패배하여 늙은이 어린애 포로 됐네.
021 貫槩殘如拓 어린애 창끝에 꿰었으니 탁발 같이 잔혹했고
022 投鞭衆若符 채찍을 던지니 군사들 부견의 줄개처럼 많았네.

.....

- 029 源氏修隣好 원씨가 교린을 청하여
030 權宜出廟謨 조정에서 권도를 냈다네.
031 固知湯餉葛 탕이 갈뻘을 먹인 것 같은 줄 잘 아나니
032 休謂越忘吳 월나라가 오나라를 잊은 것 같다고 말하지 말게나.

이 부분을 보면 남용익이 임진왜란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있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남용익은 인조 6년(1628)에 태어났다. 출생 시기로 본다면 그는 임진왜란이 종식된 지 30년 뒤에 태어난 인물이다. 그러나 <壯遊>에서 인용한 위의 부분을 보면 남용익이 일본으로 사행을 떠날 때까지 그는 임

진왜란으로 인해 일본에게 조선이 입은 상처를 잊지 못했고, 전쟁 중 일본인들의 행위에 대해 치를 떨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對日本認識은 남용익뿐 만 아니라 당대 조선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고 생각된다. 남용익을 포함한 조선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불신이 임진왜란 이후 58년이 지난 제6차 통신사행 시기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음은 이 시에서 남용익이 德川家康이 청한 修好交隣의 청에 대해 조선 정부에서는 權道로 대한 것일 뿐이어서 탕이 갈백을 먹인 것과 같은 경우이지 율나라가 오나라에 대한 경계심을 잊었던 것과는 다르다고 한 부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사행 전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남용익의 기본 인식이었고, 이 인식은 당대 조선 사회의 집단적 공동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남용익의 기저 의식은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을 멸시하는 남용익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조선에 대한 自尊意識으로 轉化되어 나타났다. <壯遊>의 39구부터 100구까지, 즉 일본으로 사행을 떠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첫 단락의 대부분에서 남용익은 조선의 문화와 사행단의 구성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기술 내용을 앞부분과 비교해 보면 남용익의 자존 의식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식 역시 전통적인 의식으로 조선을 일본에 대한 문명의 시혜자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7구부터 100구까지의 서술 내용은 전술한 것과 같이 사행단 구성원의 소개, 사행 임무의 부여, 사행 출발 전 부모 친지와와의 이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명의 시혜자 의식은 사행단 구성원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종사관으로 사행에 참여한 남용익이 그의 상관이었던 정사 趙珩, 부사 兪瑒의 문학과 학문적 역량에 대해서 모두 22구를 할애하여 소개하였을 뿐 만 아니라 讀祝官이었던 李明彬, 寫字官이었던 金義信과 鄭琛, 畫員이었던 韓時覺에 대해서도 그 역량을 시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 067 此行從者盛 이 사행은 수행원도 훌륭한데
- 068 吾客待而俱 우리들 기다려 함께 했네.
- 069 李白詩清逸 이명빈의 시는 맑고도 뛰어나며
- 070 金生筆勁癯 김의신의 필법은 굳세고도 예리하고
- 071 鄭虔書亦絕 정침의 서체 역시 빼어나며
- 072 韓幹畫堪摹 한시각의 그림은 남의 본이 되었네.

일본에 대한 조선의 통신사행단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제4차 사행부터 조선 통신사들의 성격이 문학 중심으로 바뀌었고, 吏文學官 또는 讀祝官을 두어 문학을 전담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용익의 통신사행 이전에 이미 조선 통신사행단의 성격이 변모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행단의 인적 구성이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적 구성의 저변에는 일본에 대한 조선의 문화적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조선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 보이고, 이 문화적 우월 의식은 스스로에 대한 自尊感을 높여주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남용익을 포함한 조선 통신사들은 일본 문인·학자들과의 만남에서 스스로 문화적 우위에 서 있다는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존감과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이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卑下意識을 유도하였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남용익은 그 자신의 시 <壯遊>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의식을 감추지 않았고, 또 문화적 시혜자였던 조선을 침탈했던 임진왜란의 원흉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비판을 가했다.

- 171 平酋開窟穴 풍신수길 제 소굴을 만들었을 때
- 172 此地萃逃逋 도망 온 도적들 이 땅에 다 모였었네.
- 173 桀鵠除仇敵 사납고 교만한 놈이 원수를 제거했으니

- 174 奸梟起隸奴 간악하고 사악한 놈 노예에서 일어났네.
 175 鼠卑終變虎 쥐새끼가 마침내 범으로 변신했고
 176 狼狠且生羆 이리가 또 다시 승냥이를 낳았네.
 177 種不遺嚙類 그 종자들 후손을 남기지 못했으니
 178 殃應反毒痛 재앙 응당 독이 되어 되돌아온 것이지.
 179 深讎屍可戮 골수에 든 원수라 송장이라도 찢고 싶지만
 180 遺恨骨先枯 뼈도 벌써 썩었으리니 그제 한으로 남네.

이 부분은 <壯遊> 속에서 임진왜란의 원흉 豐臣秀吉에 대한 남용익의 비판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豐臣秀吉이 미천한 신분에서 일어난 일본 통일의 주역이었고 해외 정벌의 대야망을 지녔던, 일본 역사의 한 부분을 주름잡은 일본의 영웅이었지만, 남용익에게는 천한 신분의 도적으로 자신의 조국을 피로 물들인 범의 탈을 쓴 쥐새끼, 표독한 이리에 불과했다. 그 원수는 자신이 만든 재앙으로 화를 당해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이미 죽어버렸지만, 남용익은 그 시신이라도 받쳐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 어려웠던 것이다. 남용익의 이와 같은 의식은 임진왜란의 원흉인 豐臣秀吉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 그 자체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어 나타났다.

- 197 立國雖悠邈 나라 세운 지 비록 오래 됐지만
 198 稱皇實矯誣 황제라 칭하니 참으로 거짓말.
 199 傲如南粵尉 오만하기는 남월왕 조타와 같고
 200 驕甚北單于 교만하기는 북선우 보다 심하네.
 201 祭典叨園嶠 제전은 천자의 원구에 외람되고
 202 宮衣僭翟褕 궁복은 황후의 왕복을 참람하네.
 203 創從王狹野 나라를 세운 것 왕협야에서부터나
 204 衰自後醜酬 왕권이 쇠퇴하기는 후제호부터라네.
 205 子噲甘心與 자쾌는 자지에게 왕권을 즐겁게 주었으나

- 206 蕭公苦口甞 소공은 쓴 입 맛으로 해마다 죽었다네.
207 建元眞可笑 연호를 쓰는 것 참으로 가소로운데
208 鬻印一何愚 돈 받고 도장을 찍으니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이 부분은 그들이 천황이라고 치켜세우는 일본의 임금에 대한 남용익의 가소로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있는 곳이다. 스스로 황제라 칭하는 것이나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 궁중의 복식까지 남용익의 눈에 들어오는 일본 궁안의 모습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특히 일본인들이 천황이라고 받드는 인물이 돈을 받고 자신의 수하인 關白이 임명한 인물의 임명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허수아비 같은 모습에 남용익은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다. 남용익의 이와 같은 일본 천황 평가는 일본인들이 關白으로 칭송했던 德川家康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 237 緬想家康業 덕천가강의 창업을 생각해보니
238 猶稱膽氣麤 그래도 담력과 기개는 크다 하겠네.
239 才如資遠鷲 재주는 먼 하늘 나는 매의 자질과 같아
240 世作假威狐 대대로 위엄을 훔쳐 쓴 여우가 되었네.
241 大任傳童子 왕의 큰 임무를 어린 아이에게 전했으니
242 稚年類匹雛 어린 나이의 왕은 한 마리 새 새끼 같네.
243 操權逾指鹿 권세 잡은 것 시슴 가리킨 조그를 능가하고
244 享富過專輪 부를 누리는 것은 전유보다도 더하네.

이 부분은 德川家康이 關白의 자리에 올라 국정을 농단했던 행위에 대한 남용익의 예리하고도 날카로운 비판 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곳이다. 도장만 찍어줄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어린 천황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던 신하인 關白 德川家康의 행위가 남용익의 눈에 좋게 보일 리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에 대한 남용익의 이와 같은 卑下 意識은 일본의 상층 지배

계급에 대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 263 風光雖信美 풍경 비록 참으로 아름다우나
 - 264 習俗是何惡 습속 왜 그리도 추악한가
 - 265 大抵鋤髭髮 대체로 수염을 깎았고
 - 266 尋常露頂顛 보통 맨머리를 드러냈는데
 - 267 雕題言唯諾 문신 새긴 이마로 네네 말하고
 - 268 挑達足徒跣 이리저리 뛰는 발 맨발이라네.
 - 269 順意能伺候 뜻을 따라 눈치 잘 보아서
 - 270 承顏好詔諛 얼굴빛 따라 아첨하길 좋아해
 - 271 絲恩銘骨髓 실낱같은 은혜도 골수에 새기고
 - 272 毫怨報睚眦 털끝만한 원한도 눈 부릅뜨고 꼭 갚네.
 - 273 送死皮皆爛 죽은 사람 장사할 땐 살가죽 다 문드러지고
 - 274 輕生腹自刳 목숨을 가벼이 여겨 제 배를 제가 가르네.
 - 275 鬪爭紛剗刺 싸울 때는 함부로 칼로 찌르고
 - 276 攘竊甚穿窬 남의 글 베끼기는 도둑질보다 심하네.
-
- 283 崇神多黷祀 신을 숭배하니 욕된 제사가 많고
 - 284 佞佛寔繁徒 부처에 아첨하니 참으로 중이 많다네.

일본에 대한 남용익의 비판적인 인식은 임진왜란이라는 조선의 국가적 재난을 야기한 일본의 지배계급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남용익의 일본 비하 의식은 <壯遊> 속에서 일본의 문명과 문화 전반에 대한 경멸과 천시로 드러났다. 또, 남용익의 이와 같은 對日本認識과 그 인식의 문학적 표현이 당대 남용익 한 사람만이 지니고 있었던 그만의 독특한 의식세계라 보이지도 않는다. 그보다는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보편적인 의식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하지만, <壯遊> 속에서 남용익이 보여준 자존

의식과 일본에 대한 멸시 의식은 다른 한편으로 남용익의 의도적인 현실 부정 욕구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壯遊> 속에서 남용익이 일본에 대해 이원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IV. 驚異와 抑制의 對應 意識

일본에 대해 이원화된 남용익의 인식은 시의 두 번째 단락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전술한 것과 같이 두 번째 단락은 일본에서의 여정과 경험을 詩化한 것으로 모두 204구이며 전체의 51%에 해당한다. 내용상으로 보아 두 번째 단락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정을 서술한 것인데, 특히 남용익은 두 번째 단락의 첫 구인 123구에서부터 164구까지에 걸쳐 對馬島를 시작으로 大阪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시 속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모두 42구에 걸쳐 자신이 지나온 지역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모두 시 속에 거론한 것은 大阪까지 남용익의 사행 경로가 모두 험난한 뱃길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 단락에서 찾을 수 있는 남용익의 이원화된 인식세계는 大阪 도착 이후의 상황을 묘사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 165 大坂雄仍麗 대관은 웅장하고도 화려하며
166 長洲淺更汚 긴 물가는 얕고도 탁하네.
167 樓缸欄又檻 다락배는 난간과 마루 갖추고 있고
168 汀草荻兼蘆 물가 풀들 갈대와 억새 뒤섞여 있네.
169 雜貨分連隧 온갖 것들이 길에 늘어져 있고
170 層城抱曲闌 층층 성은 굽은 길 안고 있네.

이 부분은 남용익이 大阪에 도착한 뒤 접한 풍경을 기술한 곳이다. 이

부분만을 본다면 남용익이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멸시 의식을 일본에 대한 기저 의식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그 멸시 의식이 일본에 대한 남용익의 기저의식이 분명하다면 멸시의 대상인 일본 오랑캐, 倭의 본거지인 大阪에 대한 남용익의 첫 인상이 웅장하고도 화려하다는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지역의 배가 조선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난간과 마루를 갖춘 큰 다락배였다고 한 것이나 온갖 물건들이 펼쳐져 있는 거리, 굽은 길을 안고 웅장하게 서 있는 높다란 大阪城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앞 장에서 살펴본 남용익의 일본 의식이 이 부분에 와서 변모한 것이거나 앞 장에서 살펴본 남용익의 의식이 잘못된 것이라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 191 山高名愛宕 산 높아 애탕산이 유명하고
 192 寺壯大浮屠 절 웅장해 부처도 크네.
 193 簇簇皆蠻獠 웅기종기 모인 사람 모두 오랑캐인데
 194 森森若蟻蛛 많기도 많아 개미나 거미 떼 같네.
 195 極蕃嫌地窄 너무나 번성하여 땅 좁은 듯하니
 196 均育憾天撫 고르게 길러주신 하늘의 은혜 한스럽네.

이 부분은 남용익이 倭京인 東京에 들어간 뒤 쓴 것이다. 높다랗게 솟은 愛宕山과 조선에서 볼 수 없는 웅장한 淺草寺의 모습이 우선 남용익의 눈에 들었다. 남용익을 놀라게 한 것은 倭京의 풍경뿐만이 아니었다. 땅이 좁다고 여겨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남용익에게 마치 개미나 거미 떼처럼 보였다. 문물의 번성과 인구의 번창함이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앞 장에서 살펴본 남용익의 멸시 의식을 일본에 대한 그의 생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남용익은 일본인들을 모두 오랑캐라 하였고, 또 이들의 번성에 대해 하늘을 원망하였다. 이런

모습은 <壯遊>의 다른 부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209 作巧橋鎔鐵 교묘한 기술로 쇠 녹여 다리 만들고
- 210 探奇觀揭珠 기이한 것 찾아 구슬을 누각에 달았네.
- 211 東登安土嶺 동으로 안토령에 올라
- 212 下瀕近江湖 아래로 가까이 강호를 내려다보네.
- 213 赴壑潮皆應 내닫는 골짜기에 조수 물결 다 화답하고
- 214 通渠地最腴 도랑을 이었으니 땅 가장 기름지네.
- 215 陂長浮楚夢 뚝은 길어 초나라 운몽보다 낮고
- 216 藪密勝秦隄 숲 뻘뻘하니 진나라 숲 능가하네.
- 217 佐邑移菴霄 고을 모두 초계와 삼계를 옮긴 듯하고
- 218 濃州埒莒邾 농주 땅은 거 땅과 주 땅 같네.

이 부분은 倭京을 나와 江戸까지 가는 동안 남용익이 접한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쇠를 녹여 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발달한 일본의 製鍊技術을 느낄 수 있고, 구슬로 누각을 꾸몄다는 것에서 문물의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다. 남용익이 접한 일본은 단순히 기술과 문물만 발달한 나라에 그치지 않았다. 도랑을 이어 기름진 땅, 楚나라의 大澤인 雲夢보다 풍요롭고 중국 長安의 秦京보다 무성한 숲, 그리고 菴溪와 霄溪 같은 고을, 莒와 邾 같은 마을을 지닌, 자연의 이름다움까지 함께 갖춘 나라였다. 이런 일본의 모습들 모두 남용익에게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대상이었다고 보인다. 이후 남용익이 접한 名古屋의 풍경과 江戸의 정경은 그가 일본에 와서 느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극점으로 이끌었다.

- 219 梁浮編舳艦 배를 이어 다리 만들어 띄웠고
- 220 路坦剗崎嶇 험한 산 깎아 평탄한 길 만들었네.
- 221 古屋饒珍肆 명고옥에는 보물 가게가 늘려있고

222 河城列酒壚 하성에는 주막이 펼쳐져 있네.

.....

233 粲粲明羅縠 휘황찬란한 비단이 화려하고

234 鱗鱗巨樽櫨 비늘처럼 뻑뻑하게 큰 집들 이어있네.

이 부분은 江戸의 정경을 묘사한 것이다. 시에서 기술된 것으로 보아 남용익이 조선에서는 결코 보지 못한 풍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배를 이어 만든 다리, 산을 깎아 만든 길, 늘려 있는 진귀한 보물가게, 펼쳐져 있는 주막, 화려한 비단이 늘어진 뻑뻑하게 이어 있는 큰 집들의 모습은 분명 남용익에게 경이로움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용익의 경이로움은 시의 다음 부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289 賀絹輕文繡 선물 주는 비단은 수놓은 것 안 아끼고

290 庄銀當美玕 갖고 있던 은으로는 예물에 쓰네.

291 燭塵標白蠟 촛불 가게에는 흰 밀랍초 광고하고

292 銅穴鑄青蚨 구리 광산에서는 돈을 만드네.

.....

299 居皆粧板壁 거처는 모두 널빤지 벽을 꾸몄고

300 屋不用鏹圻 지붕에는 흙을 바르지 않았네.

301 栱桷雕仍繪 도리와 추녀에는 조각하고 그림 그렸고

302 垣牆築又抹 담장은 흙을 쌓아 또 다졌네.

303 林庭鋪細礫 뜰에는 가는 자갈을 깔았고

304 浴室貯圓缸 욕실에는 둥근 목욕통 두었네.

이렇게 보았을 때 남용익이 바라본 일본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그러면서 호시탐탐 남을 침범하기 위해 칼을 가는 오랑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남용익의 對日本 意識도 卑下와 蔑視라 하기 어렵다. 아니면 최소한 남용익이 직접 일본을 둘러본 결과 그가 “일본의 문물이 중국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고 느꼈”거나 “여정의 진행에 따라 문물 및 인물에 관한 비판의 시각이 약화되는 양상”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용익의 일본 의식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장에서 살펴본 <壯遊>의 263구와 264구에서 “풍경 비록 참으로 아름다우나, 습속 왜 그리도 추악한가(風光雖信美, 習俗是何惡)”라고 한 것에서 앞장에서 살펴본 남용익의 일본 인식이 시 전체를 통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287 遷財儲寶貝 재물 교환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289 射利競錙銖 이익을 노려서 눈금 하나를 다투네.

.....

293 別有蘆花町 별도로 사창가 노화정이 있으니
294 中多漆齒姝 그 속에는 이 물들인 왜 여인 많이 있다네.
295 淫奢遵鄭衛 음란하고 사치함은 정과 위를 따랐고
296 妖冶笑鹽媮 요염한 단장은 제나라 무염을 비웃네.
297 賭價爭纏錦 몸값 흥정으로 재물을 다투니
298 提工肯辟纒 일삼는 일 길쌈을 하려하겠나.

<壯遊> 시의 곳곳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남용익의 눈에 비친 일본은 결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변화한 문물, 발달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변화한 문물,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오랑캐의習俗을 벗어날 수 없는倭였다. 남용익의 일본 의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았음은 내용 전개와 묘사를 중심으로 살펴본 시의 구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大阪 도착 이후 일본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시의 165구부터 귀국의

8) 김유경, 『최초의 사행기사 <壯遊歌> 연구』, 『韓國詩歌研究』 23, 2007. 253면, 255면.

여정을 서술하고 있는 세 번째 단락의 시작인 327구 전까지 시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65구 ~ 170구 ; 大阪의 화려한 풍경 묘사
- 170구 ~ 180구 ; 豊臣秀吉 비판 서술
- 181구 ~ 188구 ; 大阪에서 倭京까지의 여정 묘사
- 189구 ~ 196구 ; 倭京의 변화한 풍경 묘사
- 197구 ~ 208구 ; 일본왕의 모습 비판
- 209구 ~ 228구 ; 江戸까지의 풍경 묘사
- 229구 ~ 236구 ; 江戸 지역의 풍경 묘사
- 237구 ~ 252구 ; 徳川家康 비판 서술
- 253구 ~ 262구 ; 日光 지역의 풍경 묘사
- 263구 ~ 326구 ; 日本의 풍습 묘사와 비판

이와 같은 서술 단계의 구성은 남용익이 일본 사행 이전 지니고 있었던 그 자신의 일본인식, 즉 일본에 대한 卑下와 蔑視의 기저 의식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일본의 다양한 풍경에 대한 자신의 경이감을 기술한 이후에 반드시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壯遊>에서 볼 수 있는 일본에서 느낀 남용익의 驚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게 된다.

<壯遊>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남용익의 경이감을 허위나 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그 驚異의 대상이 이전까지 비하와 멸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壯遊> 속에서 찾을 수 있는 驚異感이 진실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은 <壯遊>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남용익의 비판의식이다.

남용익의 비판의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壯遊> 속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壯遊> 속에서 남용익이 비판을 가한 대상을 순서대로 나열해보

면 豊臣秀吉 - 일본왕 - 徳川家康 - 日本의 풍습 순이 된다. 이 순서는 여정에 따라 남용익이 거쳐 간 곳과 연관된 인물 순이다. 이 가운데 앞의 세 인물 즉, 豊臣秀吉 · 일본왕 · 徳川家康의 경우 당대 조선인이자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욕할 수 있는 비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의 세 인물과 마지막 비판의 대상이었던 일본의 인정과 풍습은 같은 층위에서 논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양한 일본의 인정과 풍습 중 <壯遊> 속에서 남용익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을 남용익의 표현 그대로 서술하자면 모두 일본의 習俗이었다. 이 시의 264구를 보면 남용익은 일본의 習俗에 대해 다른 어떤 평가도 없이 단 한글자로 “추악하다[惡]”고 단정해버렸다. 이 한 글자로 남용익이 일본과 일본인의 習俗을 평가했다는 것에서 일본 사행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남용익의 대일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 변화한 문물, 발달한 기술은 이전까지 오랑캐의 하나인 倭로 보아 비하하고 멸시했던 대상인 일본에 대한 평가를 轉換시킬 수 있는 분명하고 타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고, 대상의 관찰을 통해 그와 같은 모습을 확인했다면 이전까지 지니고 있었던 대상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하지만, 남용익은 자연환경과 문물 및 기술의 如何에 관계없이 일본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인식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남용익의 태도는 전통적인 華夷觀에 입각한 이중적 인식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華와 夷를 구분하고, 다시 文物 · 制度와 文化를 구분하여 바라보는 것으로 당대 조선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인식 방법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남용익의 인식태도가 이중적인 것이고, 이 이중적인 인식태도가 당대의 보편적인 것이라고 결론지어 버린다면 남용익이 일본의 변화한 문물과 발달한 기술을 접하고 자신이 느낀 경이감을 시 속에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곤란하다.

남용익은 전통적인 유학자였고 자신의 신념에 철저한 인물이었다. 남용익이 숙종 15년(1689) 昭儀張氏가 왕자를 낳아 숙종이 그를 원자로 삼으려 하자, 여기에 극언으로 반대하다가 명천으로 유배되어 3년 뒤 그곳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의 신념에 얼마나 철저한 인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남용익의 신념에 따른 행동은 일본 사행 기간 중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돌아오는 도중 대마도에서 關白의 願堂에 절하기를 거절하여 음식 공급이 중지되는 등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던 사실⁹⁾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런 남용익이었기에 그의 시속에서 일본에 대한 비하와 멸시의 시각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용익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본에 대한 驚異의 표출은 그가 일본 사행을 통해 그 스스로 도저히 덮어버릴 수 없는 강한 충격을 받은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면 驚異의 표출에 뒤이어 나타나는 일본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표현은, 남용익에게 작용한 驚異의 충격이 이전까지 그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자 자연스럽게 작용한 防禦機制라고 상정해 볼 수 있다. 大阪의 화려한 풍경에서 느낀 驚異는 豊臣秀吉이라는 방어기제를, 倭京의 변화한 풍경에서 느낀 驚異는 日本王이라는 방어기제를, 江戸의 풍족함에서 느낀 驚異는 徳川家康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했다고 짐작된다. 이와 함께 남용익이 일본 사행기간 동안 접한 일본 전역의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에 대해 그가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기제는 일본인들의 習俗이었을 것이다. 그가 일본의 習俗을 방어기제로 삼은 것은 習俗이 문물과 제도, 기술의 발달로도 끝내 바뀌지 않을 일본의 본질적이

9) 『國朝人物考』, 南龍翼, “明年回泊馬導, 島主持江戸僞狀, 迫令行拜于關白願堂. 公以義折之, 島主絶日供旬餘以脅之, 公藏舟閉館若不欲歸, 島主知不可屈, 始遣歸.”

면서도 최종적인 한계라고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남용익의 <壯遊>에서 찾을 수 있는 일본에 대한 비판, 비하와 멸시의 시각은 일본을 바라보는 남용익의 기저 인식이 작용한 결과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일본을 접하고 느낀 스스로의 경이를 억제하고 제어하여 조선과 일본을 구분하고 조선을 일본의 위에 두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기제의 작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V. 結論

남용익의 <壯遊>는 당대 일본을 직접 접했던 조선 지식인들의 갈등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시이다. 일본을 접하고 느낀 남용익의 충격은 그에 게 문물과 제도, 그리고 기술이라는 일본 사회의 한 단면에 대해 경이감에 가득한 긍정으로 스스로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계기는 끝내 오뎅이를 흔드는 움직임이나 찻잔 속의 작은 파문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었던 굳건한 인식의 완고한 벽에 부딪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번화한 문물과 발달한 기술 및 제도에 대한 경이로운 감탄에도 불구하고 일본·일본인에 대해 자기 억제를 통한 비하와 멸시라는 인식 태도를 보여준 남용익의 이원화된 일본 인식의 근거가 당대 조선 문사들이 일본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전통적인 문화적 우월의식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적개심 때문이었는지는 단언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것이 주된 이유가 되었던 이 두 이유의 저변에는 근대 이전 동아시아지역을 관류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華夷觀이 흐르고 있었다고 보인다.

華夷觀에 의한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일본은 동일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조선과 일본은 다른 어떤 것에 앞서 文化圈域에 의해 구분된다. 문화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당대 조선인들에게 일본은 어떻게 보아도 하나의 집단으로 뭉칠 수 없었다. 이 구분은 설령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남용익의 이와 같은 의식은 그 혼자만의 것이었다기보다 그 이전시기부터 그에게 이어져, 다시 조선 후기까지 전해진 조선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문물과 제도,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조선 지식인들의 의식은 보다 내면화되었고 조선과 일본을 구분하여 스스로에게 도덕적 우월성을 중심으로 재무장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남용익이 일본 사행 도중 느낀 경이감이 남용익에게 <壯遊> 속에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비판을, 또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자신의 심경 서술, 특히 개인적인 수양에 보다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로 구성하도록 만든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같은 <壯遊>의 내용 구성은 역설적으로 사행 전 남용익이 지니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막연하고도 전통적인 비하와 멸시 의식이 사행 기간의 경험에 의해 크게 동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壯遊> 속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또 세 번째 단락이 유가적 도덕성을 강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일본 사행기간 동안 남용익의 내면세계가 움직인 흔들림의 진폭이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의 충격과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의 작용과도 같이 볼 수 있는 남용익의 이원화된 일본 인식, 그리고 그 이원화된 인식의 결과인 <壯遊>는 남용익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제 더 이상 일본을 이전 시기와 같이 절대적 야만국, 미개한 오랑캐인 倭로만 볼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原典

『國朝人物考』

『朝鮮王朝實錄』

『海行摠載』

『壺谷集』, 韓國文集叢刊 131.

論著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김유경, 「최초의 사행가사 <壯遊歌> 연구」, 『韓國詩歌研究』 23, 2007.

安末淑, 『南龍翼 詩文學研究』, 빛남, 1996.

윤재환, 「호곡 남용익의 사행시를 통해 본 대일·대청 의식의 양상과 의미」, 『한문학보』 24, 2011.

이혜순, 『조선 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韓受煥, 「壺谷 南龍翼의 使行文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Abstract

Nam Yongyik's Dualistic Perceptual World Seen through 『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 and Its Meaning

Yoon, Jae-hwan*

Nam Yongyik(壺谷 南龍翼; 1628~1692) served as Jongsagwan of the 6th Joseontongshinsahang(朝鮮通信使行) toward Japan for ten months from April 20, 1655 till February 20, 1656. His returning trip, after official schedule of Tongshinsahang in Japan, started from Edo(江戸) in November 1, and on December 29 he arrived at Jeokgangwan(赤間關). Meanwhile, he wrote a long poem, *Jeya Bangseonhangyibakri Gijangyusulgaekhoi Deukyibaekunbae*(『除夜, 放舟行二百里, 紀壯遊述客懷, 得二百韻排』, abbreviate as JBGD afterward) that consists of 200 rhymes, 400 phrases, and 2,000 characters.

The reason to study Nam Yongyik's dualistic perceptual world through the poem is both because the poem is his masterpiece and because the poem organizes the entire Tongshinsahang trip. Furthermore, studying his perceptual world during the trip is for examining how Joseon perceived Japan 60 years after Yimjinwaeran(Korean-Japanese War).

Nam Yongyik's idea about Japan before the Sahang trip, what he perceived during the trip, and his idea about Japan after the trip, despite the diversity in depth, is not merely his own but general perception among Joseon's bureaucrats having experienced Japan of the time, and that idea and perception is thought to have considerably influenced the image of Japan of Joseon's other bureaucrats without direct experince of Japan. Indeed, the process in which Nam Yongyik changed his idea about Japan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trip can be a clue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ankook University

and Japan of the time and of the future.

Nam Yongyik's perceptual world about Japan in JBGD is a clear separation between Joseon and Japan. This separative understanding regarded Joseon as the cultural provider toward Japan and Japan as a passive cultural adopter, and defined Japan as an ungrateful nation invading its cultural benefactor. Such understanding about Japan seemed to be common not only for Nam Yongyik but also for people of Joseon of the time. Nam Yongtik's contempt against Japan became transformed into his self-respect for Joseon. Especially, Nam Yongyik derived the contempt against Japan within his sense of cultural superiority, and criticized Japan for instigating Yimjinwaeran. His criticism appeared as disdain and scorn toward everybody in Japan and toward Japanese culture in general. However, it is hard to deny the possibility that such perception is derived from his desire to deny the reality because Nam Yongyik showed his dualistic perception about Japan in JBGD.

Watching the second paragraph of this poem, the wonderfulness that Nam Yongyik experienced through his directly experincing Japan can be easily verified. Japan in his experience was a country having plentiful production, advanced technology and system, and even beautiful nature. It seems that such appearances of Japan shocked and amazed Nam Yongyik. Indeed, Japan in Nam Yongyik's direct experience cannot be called an undeveloped, uncivilized, and incursive barbarian country, and the descriptions appearing in his poem denies that his perception of Japan was scorn and contempt. However, deeper and more detailed examination on his poem attests that Japan in Nam Yongyik's eyes were Wae(倭) maintaining barbarian customs despite its gifted natural environment, voluptuous production, and advanced technology.

Then, how to explain Nam Yongyik's marvel seen in JBGD became a matter. The marvel found in his poem can be inferred as the result of insuppressible strong shock from his sahaeng trip experience. Criticism against Japan after exposing his marvel can be regarded as a natural self-defence mechanism in the situation that the shock reach the level to

change his ideas about Japan. His criticism, scorn and contempt in JBGD was the result from his deep prejudice about Japan and a natural defence mechanism through which he could suppress the wonder from his own direct experience of Japan in order to keep Joseon separated from and superior to Japan.

Eventually, the contents of JBGD means that Nam Yongyik's traditional disparaging prejudice became notably agitated by his sahang trip experience. JBGD exposing the amplitude of his agitation should be regarded as an evidence showing that Nam Yongyik as well as Joseon's intellectuals of the time could not regard Japan as uncivilized and savage barbarian Wae any more.

Key-words : Hogok Nam Yongyik, Joseontongshinsa(朝鮮通信使行), *Jeya Bangseonhangyibakri Gijangyusulgaekhoi Deukyibaekunbae*(JBGD), Japan, perception

윤재환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031-8005-3019 / 010-9871-1037

insemin@dankook.ac.kr / inse-yoon@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